

한화, 변화와 혁신을 위한 200km 도보행진

질적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<그룹 창립시절 선배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자>는 취지로 그룹 모태인 인천화약 공장터에서 새로 이전한 속리산 보은공장까지 20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<한화 도보 대행진>을 진행하고 있다.

11월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행진은 신은철 대한생명 부회장,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및 임직원 100여명이 첫날 행군을 시작했으며, 남영선 한화 사장, 조창호 한화종합화학 사장, 진수형 한화증권 사장 등 핵심 계열사 최고경영자(CEO) 및 임직원 220여명이 2개 구간으로 나누어 릴레이 형태로 참여한다.

1년 전 <사랑의 행진>에서 신입사원들과 50km 산악행군을 했던 김승연 한화 회장은 6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화 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.

최근 창립기념사에서 <대륙을 횡단하는 철새의 생존 본능을 배우자>고 강도 높게 요구한 김승연 회장은 대행진을 통해 임직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고민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. <연합뉴스 - 무단전제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08>